

초등~대학생 '미래의 스티브잡스' 키운다

'학생 창업유망팀 300 대회' 내달 3일 전남대서 설명회
푸드비즈니스 사업과 교육 등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다양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주무부처는 경진대회-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창업유망팀300 경진대회'에 최종 선발된 전남대 소속 8팀. <광주일보 자료사진>

초기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대학 기술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공모가 오는 7월 까지 진행돼 예비 창업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창업 경진 대회인 '학생 창업유망팀 300 대회'는 올해 부터 초등생도 도전할 수 있어 아이디어로 뚝뚝 문진 지역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도 참가-학생팀 300 경진대회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대학원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창업 경진대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3~7명으로 팀을 구성해 실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화장품 업체 '팜스킨', 사물인터넷 공기 관리시스템으로 주목받는 '에이올코리아' 등이 이 대회 출신이다. 4회째인 이번 대회는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월3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등 부산·강원·대전 등지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가 열린다.

대회를 통해 선발되는 300개의 창업유망팀은 교육부·과기부 등 유관 부처가 '학생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시제품을 고도화할 자금, 전시 및 투자 유치 기회, 해외 캠프, 특허청 인증서 증명서 비스 등 특전도 주어진다.

또 300팀 중 상위 40팀은 올해 9월 개최되는 '도전! K-스타트업 2019' 본선에 진출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등 부처별 예산을 통해 올라온 다른 152팀과 총 상금 13억5000만원을 두고 경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다음 달 10일부터 7월1일까지 온라인 창업교육플랫폼 홈페이지(changg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교육-세무-기술 보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대 연구진, 식품전문 SPC그룹은 함께 청년 혁신 식품기업 5개 월 동안 함께 교육한다.

이들 기관은 '청년 혁신 푸드비즈니스 사업과 교육' 참가자를 이달 30일부터 7월21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3인으로 구성된 국내 대학-연구기관에 재학 또는 근무 중인 대학원생 등 연구진에 대한 교육을 맡는다. SPC는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교육생에게 팀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투자제안서를 기반으로 제품 공

동개발 또는 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쿠폰 형식으로 연 100만 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4836개사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이번에는 추가로 1500개사를 모집하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케이스타트업누리집(k-startup.go.kr)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시티-핀테크-최대 1억원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핀테크 등 신기술 창업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한 각 주무부처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지원 대상을 공모해 170명 가운데 70명을 최종 선정했다. 39세 이하 청년인 이들은 2020년 3월까지 초기 창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억원까지 받는다.

예비 창업자들은 생활 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지원 자금을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 상담(멘토링) 등에 쓰게 된다.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풀(약 100명) 개별 맞춤 상담 등의 지원이 이어나간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핀테크 분야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이달 말부터 비즈니스 모델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국내 핀테크 기업-개인에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운영환경 변화

장기간 진행된 불경기의 여파와 정부의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들의 변화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운영전략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형 브랜드들은 안정적인 브랜드와 수익성을 발판으로 가맹점 개설수익과 운영수익 모두의 수익모델을 더욱 강화했다. 반면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형 브랜드나 신규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개설수익을 최소화해 가맹점 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수익 중심의 수익모델 강화로의 변화를 꾀하는 양극화 현상을 가장 큰 변화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거대 자본을 갖춘 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시 가맹점의 확산속도와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높이는 반면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소자본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소형 브랜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다. 그나마 자구책으로 다(多)브랜드 전략을 통해 수익성 강화를 꾀하는 돌파구 마련을 고심하게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형 브랜드들이 대형화, 고급화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 중소형 브랜드들은 소형화, 대중화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특징을 짚을 수 있다. 대형화, 고급화 전략이 본사의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사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면 소형화, 대중화 전략은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브랜드의 사업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한다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정부의 프랜차이즈 정책들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장치와 가맹점 중심의 정책이 증가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결과로도 연결된다. 가맹점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축적을 하지 못한 본사들은 언제든지 운영난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과도한 본사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탈피해 가맹점의 생존권을 강화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소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발전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는 사실은 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느끼는 아쉬운 대목이다.

수익성이 낮아진 본사들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으로 인해 과감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홍보마케팅 중심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 성장속도가 더디고 유사 브랜드들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은 치열해 가맹점도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물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소형 브랜드들이 선전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일구기도 하지만 이는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결국 이런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운영을 위한 전략을 짚으려면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좋은 상권에 직영점의 수를 대폭 늘리면서 빠르게 가맹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전략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에 어쩌면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맹점 모집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직영점을 늘리면서 가맹점을 확대해 가는 '투 트랙' (Two Track) 전략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운영공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예비창업자 선정

공모 결과 호남대 고소빈 등 14명 최대 2500만원 창업 자금 지원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가 최근 '2019년 청년예비창업자 발굴·육성사업' 대상자를 최근 선발했다.

28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날 공모를 벌인 결과 고소빈(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3년)을 포함한 14명이 올해 '청년예비창업자 발굴·육성사업'에서 창업초기사업과 자금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만 15~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자금과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에게는 최대 2500만원의 창업 초기사업과 자금이 지원된다.

공모에 선정된 고소빈씨는 자동차 시트나 안전벨트 등 환경폐기물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Upcycling) 의류브랜드를 사업 아이템으로 제시했다. 그는 6개월간 최대 19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며 업사이클링 제품디자인을 기획·제작해 친환경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초순 '2차 청년 예비창업자' 공모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062-239-961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외식업소 공동 구매비용 지원받으세요

11월 20일까지 상시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외식업소의 식재료 공동 구매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2019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월 2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식업체 경영비 절감과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전국 우수 외식업지구 및 외식 관련 법인·협회·조합·변회 등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이며, 조직화 예정인 단체·조직도 포함된다.

선정된 조직에는 인건비·물류비·창고임차비·교육컨설팅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모든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는 11월20일까지 사업을 집행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받는다. 단 지원금액의 2배 이상을 식재료 공동구매에 써야 한다.

신청은 'The외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atexpogo@at.or.kr)으로 내면 된다. 문의 061-931-0718. 신청은 공사 식품수출이사는 "올해 1분기 외식업 경기지수가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외식업계의 건실한 성장은 곧 우리 농식품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만매각.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북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